

광주 첨단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310억원 투입해 최첨단 태양광 시설 신축 입주 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RE100 기업 지원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로 전환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기로 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RE100 인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1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10억원(국비 200억원·시비 20억원·민자 90억원)을 투입해 첨단1·2지구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통합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핵심은 최첨단 태양광 시설 신축이다. 광주시는 첨단1·2지구 산단 내에 8MW 규모(직

접PPA용 3MW, 지붕입대형 3MW, 자가소비형 2MW)의 태양광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단내 연간 전력사용량(424GWh)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9GWh에서 47GWh 규모로 끌어올리고, 산단 전력자급률을 9.23%에서 11%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3MW 규모의 직접PPA용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PPA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한국전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방식이다. 직접PPA용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RE100 인증이 필요한 입주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100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자는 민간 차원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광주시는 또 첨단산단 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인증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인 디지털트윈을 탑재한 고도화된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직접PPA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설비 모니터링을 통한 전력발전량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산단 내 한전 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노후 태양광 교체와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에너지 효율화 장비 교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첨단산단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첨단산단은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로서 도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광주시 전력사용량의 32%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세요" 지난 28일 광주 북구(청장 문인)는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고향사랑' 활성화 상생대회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자치구 재난 매뉴얼 관리 부실

시, 유형별 안전감찰...부적절 26건 행정처분 요구

광주시가 자치구의 부적절한 재난 행동 매뉴얼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자치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실태를 감찰한 결과 26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매뉴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제·개정 때 관계부서 협의와 승인절차 이행 ▲매뉴얼 표준화서식 반영 ▲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황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미준수 등 26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으며,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리·감독 부실 등 사유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지속 관리는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때 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관리를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뿌리 산업 구인난 개선 나선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주조·금형·용접 분야 집중 지원

광주시가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부조화) 해소를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20억원(국비 15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입해 주조·금형·용접·소성기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다. 주요 사업은 ▲뿌리산업 종사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한 '뿌리내림공제' ▲취업애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뿌리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종년 노동시장 재진입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직종 특화훈련' 등이다. 뿌리내림공제는 공제가입 연령제한을 해제하고, 기업부담금을 광주시가 대납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 추진한다.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200만 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때 지원금 4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뿌리기업이 만 35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자리도약 장려금으로 1인 월 60만원씩 연간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은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미취업자 신규채용때 지원금액을 1인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뿌리산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종 특화훈련을 통해 훈련수당 및 구직활동비, 취업장려금도 지급한다. 광주시 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과 참여자는 2일부터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광주그린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신종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25 전후 전남 민간 희생자 규명 노력

도, 2차 연구용역 착수...중부·기타지역 전수 조사

전남도가 지난 28일 도청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자가 2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 규모 및 성격 사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추진한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서부권 8개 지역 4만1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올해 중부권과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해 전남도 전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제2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4월부터 9개월 동안 중부권과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문헌자료와 현장조사, 희생

관련자 진술 청취, 피해 사실 고증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군·경, 적대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자를 전수 조사한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숙제다 생각한다"면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체 규모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생자 추모하며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념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앞으로 '과거사정리법'에 배·보상 근거 규정 신설,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신설 등 법안 개정까지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